
모두의 블랙리스트

진 유 립

며칠 전, 기숙사 사감선생님께서 전체 점호 시간에 입을 여셨다. “여기 종이를 나눠줄테니 오늘 11시 반까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사감실에 내도록.” 순간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. 블랙리스트? 그게 뭐지? 어리둥절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, 올 때가 왔다는 듯 착잡한 표정을 짓는 아이들도 있었다. 나는 전자에 속했다. 점호가 끝난 후 룸메이트에게 물어본 후에야 나는 우리 학교에 ‘블랙리스트 제도’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.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, 그것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도 여실히 깨닫게 되었다.

우리 학교 기숙사는 매 학기마다 방을 바꾼다. 그 과정에서 ‘블랙리스트’를 작성할 수 있는데, 같은 방이 되기 싫은 친구를 최대 3명까지 쓰는 것이다. 블랙리스트 제도의 목적은 이해가 된다. 매일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고 공부를 해야 하는 기숙사 룸메이트가 자신과 정말 안 맞는 사람이 된다면,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. 하지만 문제는, 블랙리스트를 적는 과정에서 오고가는 이야기들과 그것이 미치는 결과이다.

기숙사 사감선생님께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하신 그 날 저녁, 우리 1학년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분주한 움직임이 일었다. 바로 ‘공블리’를 알아내기 위해서이다. ‘공블리’란 ‘공개(혹은 공동) 블랙리스트’의 준말로, 한 학기 룸메를 해본 결과 ‘애는 정말 아니다’라고 낙인찍힌 아이들을 말한다. 소위 말해, 모두가 피하려고 하는 애들이다. 선배들이 말하기를, “공블리는 일단 적고 봐야 한다“. 모두가 공블리를 적는데 나만 안 적으면, 내가 그 친구랑 방을 쓰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. 나중이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, 기숙사 방 바꾸기 며칠 전부터 아이들끼리는 공블리에 대한 이야기가 활발하게 오고 갔다고 한다. 나는 평소에 그런 뒷말을 하는 자리에 잘 끼지 않는 편이었기 때문에, 그날까지 공블리가 누군지 모르고

있었다. 그래서 하는 수 없니 그날 저녁 여러 방을 다니면서 어렵게 수소문한 결과, 공블리 몇 명을 알게 되었고 결국 그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서 사감실에 냈다.

그 다음날 아이들 사이에서는 묘한 분위기가 오고 갔다.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보니, 내가 어제 들은 공블리들은 다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. 그들도 자기가 공블리라는 것을 알까? 순간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. 마음 같아서는 내가 그들 앞에 가서 함께 밥을 먹어 주고 싶었지만, 그러지 못했다. 거기까지 이를 만큼 나는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다,

전날 밤 친구들로부터 들은 공블리들은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아이들이었다. 그 전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눈 친구도 거기에 속해 있었다. 하지만 그 아이에 대한 소문과 평가를 듣는 순간 나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. 사실 그 이야기가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른다. 어쩌면 진짜 괜찮은 앤데, 룸메가 악감정이 생겨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 것일 수도 있다. 하지만 나는 가만히 있었다. ‘진짜인거 확실해? 개 얘기해보니까 괜찮던데.’ 라고 말해주지 않았다. 그저 조용히 그들의 이름을 종이 한 권에 적어서 냈을 뿐이다.

공블리로 지목된 아이들은 사실상 그 이후로부터 왕따나 다름없었다. 아이들은 공블리와 함께 밥을 먹지 않았고 말을 섞는 것도 피했다. 어제까지만 해도 친했던 친구가 공블리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, 아이들은 당황했다가, 이내 그 친구를 외면하기로 선택했다.

공블리 문화는 주동자 없는 왕따를 만들어낸다. 그리고 모두가 거기에 암묵적으로 동조한다. 한 학생의 인권은 그렇게 철저히 파괴된다. 인권에세이를 쓴답시고 키보드 자판을 두드리는 나 또한, 인권 유린의 현장에서 비겁하게 침묵을 지켰다. 결국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, 왕따는 공동체에 내재되고 정당화된다. 그러니 이제는 나서야 할 것 같다. 2주 뒤 개학을 하면, 제일 먼저 그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싶다.